

# 유틸리티

## EU,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발전으로 인정

### 유틸리티/철강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 원자력과 가스도 이제는 친환경 발전

EU Taxonomy 위임법률의 초안이 정식 발표되기 이전, 주요 내용이 1월 2일 Financial Times, Reuters 등 외신 등을 통해 공개. 일부 제한을 두고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발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 원자력 발전은 1) 방사능 폐기물의 저장 계획, 자금, 장소가 모두 마련되어야 하고, 2) 건축 허가를 2045년까지 얻어야 함. 가스 발전은 1) kWh당 270g 이하의 탄소를 배출해야 하고, 2) 기존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프로젝트에 한하며, 3) 2030년 이전까지 건축 허가를 얻는 동시에 2035년까지 저탄소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을 보유해야 함.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1월 내 이뤄질 정식 발표 이전까지 각국 및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며, 발표 이후에도 EU 혹은 EC의 과반 국가가 동의할 시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세부적인 수정이 있더라도 원자력, 가스를 포함시키는 결정 자체가 되돌려지기는 어렵다는 판단.

EU 내 금융 기관은 2022년부터 EU Taxonomy 부합 정도를 공시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2023년부터 공시가 의무화 됨. 원자력, 가스가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되면서 더 낮은 비용에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신규 프로젝트 역시 증가할 전망. 이러한 효과는 전체 원가 중 이자 비용의 비중이 높은 원자력 프로젝트에 특히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제 다음은?

한편, 2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4개 호기의 터빈건물 등 2차측 건설사업)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 4월 정식 계약 예정. UAE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최초의 조 단위 해외 수주라는 점에서 유의미 하다는 판단. 다만, 수주 규모가 크지 않고(1~1.5조원 수준 예상), 연말 각종 뉴스 등을 통해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수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던 상황.

EU Taxonomy와 이집트 수주 등 큼직한 뉴스가 공개된 상황에서 다음으로 주목해볼만한 원자력 관련 이벤트는 3월 9일 대선. 이후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 여부가 결정될 2022년 말~2023년 초까지 예상 가능한 이벤트는 부재. 연초 공개된 긍정적인 뉴스들이 단기간에는 원자력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이미 기대감이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후속 이벤트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중기적으로 랠리가 이어질 지는 불확실하다는 판단.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